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사례연구 (3)

-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 -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City’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s (3):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

윤 정 옥 (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의 현황 |
| 2. 선행연구 | 4.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One Book’ 지역사회 독서운동인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 (이하 OCOB라 부름)의 사례연구로 진행하며,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목표, 선정 책들의 특성 및 주요 행사와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OCOB는 전도시를 북클럽으로 만들어 독자와 토론을 촉진하는 전형적 ‘One Book’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정체성을 중심으로 문화적 및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한 책들을 선정하였다. 시민들은 적극적 프로그램 참여 및 선정 책 대출 증대 등으로 반응하였다. OCOB는 다양성의 이해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One Book’ 독서운동으로서의 지속성, 일관성,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여주며, SFPL의 ‘비전 2030’을 위한 ‘문화적 확장자’ 및 ‘커뮤니티 촉매자’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of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 (Hereafter OCOB), which is an ‘One Book’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sponsored by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in California. In this research, the objective of OCOB as ‘One Book’ program, the characteristics of selected books, and major programs and events from 2005 to 2024 were examined. OCOB, while sharing a typical objective of ‘One Book’ campaign, which pursues to form a city-wide book club and promote reading and talking about ‘One Book’ among citizens, selected books which reflected cultural and ethnic diversities of San Francisco and its civic identity. San Franciscans reacted to the efforts of OCOB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programs and events and borrowing the selected books. For the past 20 years, OCOB has demonstrated the continuity, consistency,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as a ‘One Book’ program, which pursues to better understand diversities and integrate communities, and is expected to continue as an important initiative, which is a strategic part of ‘Cultural Amplifier’ and ‘Community Catalyzer’ for ‘Vision 2030’ of SFPL.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One Book’ 프로그램, 지역사회 독서운동, 원시티 원북: 샌프란시스코 리즈, 공공도서관 행사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One Book’ Program, Community Reading Campaign,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 Events in Public Libraries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 ISNI 0000 0000 4145 6478)

논문접수일자: 2024년 7월 29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8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3): 247-263,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3.247>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지역 사회 대중독서운동 (이하 “One Book’ 독서운동’이라 부름)은 지난 1998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 시애틀 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이 주관하는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현재는 ‘Seattle Reads’)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2024년 현재도 미국, 캐나다,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One Book’ 독서운동이 벌써 25년이라는 역사를 쌓아오는 동안, 독서운동의 창시자인 시애틀의 ‘Seattle Reads’나 이후 ‘One Book’이란 명칭의 시발점이 된 시카고의 ‘One Book, One Chicago’와 같이 선도적인 ‘One Book’ 사례들은 여러 논문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다른 ‘One Book’ 프로그램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대중독서운동의 대표적 모형으로 상당부분 정형화된 ‘One Book’ 독서운동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지속해온 다양한 개별 지역사회들에서 정형성과 더불어, 어떤 고유성과 역동성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의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이하 SFPL이라 부름) 주관으로 200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 (이하 OCOB 라 부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OCOB는 이른바 ‘One Book’ 독서운동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크고 작은 여러 지역사회에서 ‘One Book’ 프로그램들이 시작된 시기에 출범하였다. 그 사이 많은 ‘One Book’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OCOB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라는 개별 ‘One Book’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로 진행하였다. OCOB가 지난 20년간 지향한 목표, 선정 책들의 특성 및 주요 행사와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One Book’ 독서운동의 정형성과 함께 드러난 개별성 및 고유성을 서술하고, 그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ne Book’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고, OCOB 주관 기관인 SFPL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커뮤니티 기관 및 단체들의 보도자료, 잡지, 신문기사,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NEA Big Read’, 미국의회도서관 등 ‘One Book’ 관련 주요 기관, 단체 및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였다.

2. 선행연구

지난 5년 사이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만 살펴보면, 장덕현(2022)은 2004년 출범한 ‘원북 원부산’이 “사회적 독서와 독서공동체 확산, 독서환경 조성, 시민주도형 독서문화”에 기여하

였음을 강조하였고, 윤정옥(2022)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지자체가 시행한 57개 ‘One Book’ 프로그램과 이들의 선정 책 729종 1,119권의 특성을 정리하여, 점점 더 연령별 책의 분산 선정, 책들 간 주제적 연관성 결여, 청소년 수준 책, 신간 및 대중적 화제작 문학책의 선호 등을 발견하였다. 또한 윤정옥(2023)은 ‘One Book’ 독서운동의 원조인 ‘Seattle Reads’의 사례연구로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지향한 목표, 선정 책들의 특성 및 주요 행사와 활동을 분석하여, 다양한 문화적 및 민족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책을 매년 선정함으로써 다양성의 이해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One Book’ 독서운동의 지속성, 일관성, 자율성 및 독립성을 꾸준히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많지는 않지만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 바깥에서 특히 문학 분야 연구자들이 ‘One Book’ 독서운동에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국문학자 오세란(2019)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36개 ‘One Book’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아동·청소년도서를 분석하여, 아동 대상으로는 다양한 작가와 주제의 동화가, 청소년 대상으로는 비교적 소수의 작가의 문학 및 비문학작품들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One Book’ 독서운동 자체의 의미보다는 선정 책들의 분석에 집중하였는데, 대부분 국내 ‘One Book’ 프로그램들이 초기에 주로 청소년 및 일반 대상 책들을 한 권씩 선정하였으나, 점점 연령대 별로 따로 책을 선정함에 따라, 어린이책들이 많이 선정되는 경향임(윤정옥, 2022)을 감안하면, 2018년 이후 수적으로 급격히 증대된 어린이책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오세란(2019)의 후속 연구가 기

대된다. 문학교육 부문의 독서학과 독서교육 전문가인 이국환(2023)은 이전 연구(이국환, 2018)에 이어서 국내 대표적 ‘One Book’ 프로그램인 ‘원북 원부산’의 20년 역사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의 의미와 함께 향후 수행할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문헌정보학 아닌 다른 분야에서 국내 ‘One Book’ 독서운동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누적된다면, 향후 도서관 중심 ‘One Book’ 프로그램들의 방향성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이다.

3.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의 현황

3.1 OCOB의 배경

3.1.1 샌프란시스코의 현황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인 SFPL이 주관하는 ‘One Book’ 프로그램이다. OCOB가 진행되는 샌프란시스코의 공식 명칭은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로서 최근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2023년 7월 1일 기준, 인구는 808,988명이다(US Census Bureau, 2024a). 인종 구성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시 인구에서 백인 비율은 41.9%이고, 카운티 전체에서 50.8%인 한편, 아시아계 인구 비율은 각각 34.8%, 37.2%,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계 인구 비율은 각각 15.5%, 16.4%이다. 지역 주민의 절반 정도

가 백인이 아니라 단일 유색인종이거나 혼혈인 다문화, 다민족 계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해외출생자(foreign-born persons) 주민의 비율은 33.9%로 전체 인구의 삼분의 일 정도가 이민자이며, 25세 이상 주민들 가운데 대학이상 졸업자는 59.8%이다. 동일 센서스에서 미국 전체 인구 334,914,895명 가운데 백인 비율은 75.3%, 아시아계 인구 6.4%,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계 인구 비율은 19.5%, 해외출생자는 13.7%, 25세 이상 대졸자는 34.3%인 것과 비교해보면(US Census Bureau, 2024b), 샌프란시스코의 문화적 및 인종적 다양성이 매우 크며, 상대적으로 교육 및 생활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샌프란시스코 또한 시애틀에서 'Seattle Reads'가 지향했던 대도시의 인종적, 민족적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커뮤니티 통합이라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다.

3.1.2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현황

SFPL은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1879년 처음 개관하였다. SFPL은 2024년 기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있는 중앙도서관 외에 27개 지역분관과 4대의 북 모빌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2022-23년 통계에 따르면, SFPL의 연간 예산은 \$185,700,000으로 원화(\$1 당 1,400원 환율)로 환산하면 대략 2,600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총 대출 건수는 12,513,943건으로, 이 가운데 실물 대출은 6,745,374건, 전자대출은 5,784,792건이었다. 도서관 방문은 3,398,569회에 달하고, 특히 6,030회 진행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는 1,854,000여 명이 참가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활동이 위축되었던 전년도에 비하여 참여율이 223%나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71회 진행된 성인대상 프로그램에는 868,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소셜 미디어를 통한 도서관 홍보 및 이용도 활발하여, 2023년 기준 Facebook(31,439명 팔로워), Twitter(X)(22,370명 팔로워), YouTube 및 Instagram(37,500명 팔로워)에서 1,408,864 회의 '좋아요/싫어요', 코멘트, 공유 등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LibAnswers Stats-Remote Patron Support (LibAnswers, LibChat, Tip Line)를 통해 원격으로 36,200여 회 인터랙션이 있었고, 424,800여 건의 대인 참고질의를 응답하였다(SFPL, 2024b). SFPL의 장서규모는 2022년 4,214,449권으로, 이 가운데 실물 장서는 2,461,481권, 전자장서는 1,752,968권에 해당하였는데(SFPL, 2023), 2023년에 393,400권의 실물장서가 추가되었고, 영어가 아닌 자료는 53,900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SFPL, 2024b).

한편 SFPL은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30년을 향하여 '모두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역동적인 샌프란시스코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학습기회 및 서로에게 연결하는 것'을 사명으로 선언하였다(SFPL, 2024, 18). '비전 2030'에서는 '행복(Well-being), 커뮤니티(Community), 평등(Equity), 협력(Collaboration), 탐구(Exploration)'라는 다섯 가지 가치를 지향하며, '전략적 우선순위'로 '리터러시 챔피언(Literacy Champion)', '문화적 확장자(Cultural Amplifier)', '커뮤니티 촉매자(Community Catalyzer)', '신중한 항해자(Thoughtful Navigator)' 및 '자원공급자

(Resource Provider)’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SFPL이 지향하는 비전, 사명 및 가치와 발맞추어 커뮤니티에 가장 잘 봉사하기 위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SFPL, 2024, 19).

SFPL의 ‘전략적 우선순위’ 다섯 가지는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고,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OCOB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문화적 확장자’ 및 ‘커뮤니티 촉매자’로서의 역할이다. SFPL은 ‘문화적 확장자’ 전략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기리고, 집중하며, 이해를 심화시키는 문화적 경험을 촉진’한다고 하였고, ‘커뮤니티 촉매자’ 전략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생성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도서관 안팎에서의 경험을 고양’한다고 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촉매자’로서 추진하는 다섯 가지 전략 가운데 ‘전략 3’은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 및 전문성의 공유를 촉진하는 공유된 경험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로서 ‘Night of Ideas’ 및 ‘Branch Open House’와 함께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3’의 추진 기반이 되는 커뮤니티 요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 ‘경험을 가진 이웃으로부터 정보와 안내’, 그리고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집밖을 나설 이유’ 등이 제시되었고, 그 결과로서 ‘소속감 증대, 커뮤니티 건강과 행복 확대, 더 강력한 사회적 연계’ 등을 기대한다고 하였다(SFPL, 2024, 52-54). 이 ‘전략 3’을 위한 도서관 이니셔티브가 OCOB만은 아니지만, OCOB에는 이러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요구와 기대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도 SFPL

이 OCOB를 계속 추진할 당위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3.1.3 OCOB의 현황

OCOB는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샌프란시스코의 ‘One Book’ 프로그램이다. 2005년 출범 당시 SFPL 도서관장은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가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전도시 북클럽”이라고 선언하였고, 시장은 “샌프란시스코는 강력한 문학적 및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이며, 하나의 도시로서 특별히 미래 세대의 지도자인 젊은이들 사이에 독서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축하하였다(SFPL, 2005). OCOB는 처음부터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동시에 같은 책을 읽고, 북 그룹에서 토론하며, 도시 전역에서 행사를 진행하자고 독려하는 전도시 문학행사”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Seattle Reads’를 비롯한 전형적 ‘One Book’ 프로그램들이 표방하는 바와 일치한다. OCOB는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 권의 책의 토론을 통해서 커뮤니티들과 세대들 간 교량을 구축함으로써, 독서가 평생 추구하는 일이 되고, 보다 교양 있는 사회를 구축하도록 돕기를 바란다”는 목표와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SFPL, 2024f).

OCOB는 2005년부터 매년 한 권씩 책을 선정하여 읽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0-21년은 행사를 통합하여 가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2022년은 건너뛰었다. 2023년 재개하여 2024년에도 진행하였다. SFPL의 주요 후원기관인 Friends of the San Francisco Public

Library는 2023년 연차보고서에서 2023년 선정 책 *This is Ear Hustle*을 언급하면서 OCOB 2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였으나(FRIENDSSFPL, 2023), SFPL은 공식적으로 2023년을 17번째, 2024년을 18번째 OCOB로 진행하였다.

OCOB는 SFPL이 주관하지만, Friends of the San Francisco Public Library가 주된 후원자이며, 그밖에 외부의 서점 파트너, 프로그램 파트너 및 미디어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는다(SFPL, 2024f). 2024년 OCOB 가이드북을 보면 뉴욕에 소재한 출판사 Counterpointpress,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문화재단 LitQuake Foundation,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철도 시스템인 bart.gov/bartable 및 전국적 연례행사인 Asian/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San Francisco United School District), Chinese Culture Center of San Francisco 등이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SFPL, 2024c). 이러한 지역사회 파트너들은 선정 책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한편 SFPL은 OCOB와 더불어 'On the Same Page'라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OCOB는 공식적으로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란 명칭을 갖고 있는데, 'On the Same Page' 또한 'San Francisco Reads'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말하자면 SFPL이 'San Francisco Reads'란 독서 이니셔티브에서 연례행사로서 OCOB를 진행하고, 연중 내내 두 달에 한 권씩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행사로서 'On the Same Page'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OCOB는 4월부터 6월 사이 집중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완료

되었지만,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On the Same Page: My Government Means to Kill Me'를 진행하며, 8월 중 작가 Rasheed Newson의 강연 및 줌을 사용한 On the Same Page Book Club 미팅을 진행한다. 'On the Same Page'는 9월부터 10월까지 다른 책을 선정하여 읽게 된다. 'On the Same Page'는 SFPL 사서들이 '커뮤니티에 흥미를 갖게 하고, 참여를 북돋운다는 목표를 갖고 문학적 우수성, 높은 관심 및 가독성을 지닌 작품들을 선정'하여 두 달 간격으로 진행하는 전도시 독서 프로그램으로, 지역 작가, 신예 작가 및 다양한 작가들에 초점을 맞춤(SFPL, 2024h)으로써 OCOB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갖지만, 연중 내내 독서와 토론을 독려함으로써 OCOB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2 OCOB의 책

3.2.1 책의 선정기준

OCOB에서 지난 20년 동안 어떤 책을 선정했는지를 보면, OCOB가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다. OCOB의 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SFPL, 2024e):

- 높은 문학적 수준,
-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들을 반영함,
- 샌프란시스코의 다양성을 대표함,
- 내용을 통해서 혹은 작가가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연결됨,
- 주요한 언어로 이용 가능함,
- 현재 발행 중이며 대량으로 입수 가능함,

- 성인 및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함.
- 엽가판 페이퍼백으로 이용 가능함.
- 도발적 토론을 촉발할 수 있어야 함.
- 책을 둘러싼 대중 프로그램을 연동시킬 수 있음.

OCOB는 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상기한 기준에 알맞은 책들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시민들은 책 추천을 위해 책의 표제와 저자명, 발행연도, 페이퍼백으로 입수 가능 여부, 책의 추천 이유 등 간략히 5개 항목을 기입하여 ‘추천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SFPL은 OCOB 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추천 책들을 포함하여, 읽을 책을 선정하고 있다. 2024년 제18차 OCOB 책 ‘선정위원회’는 모두 8명으로, SFPL 내부인사 4명, 시민단체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샌프란시스코 도서관 위원회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매년 시민들이 추천한 책들은 ‘Long List’ 목록으로 제시해 주는데, 2024년 ‘Long List’에는 *The Chinese Groove*를 포함해서 모두 22권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고, 2023년 ‘Long List’에는 25권이 포함되어 있다.

OCOB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On the Same Page’에서 제시한 선정기준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차이점은 OCOB는 시민들이 추천한 책들을 OCOB ‘선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한편, ‘On the Same Page’는 시민들 의견도 참조하지만 SFPL 사서들이 다음 기준에 따라 직접 추천한다는 것이다(SFPL, 2024h):

- 높은 관심과 가독성

- 커뮤니티에서 흥미를 이끌어냄
- 문학적 우수성
- 절판되지 않고 다량으로 이용 가능함
- 오디오를 포함한 비인쇄 포맷으로 이용 가능함
- 다른 언어들로 이용 가능함
- 매력적인 토론을 촉발할 수 있음.

‘On the Same Page’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격월로 진행함에 따라 매년 5-6권의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8월 선정 책인 *My Government Means to Kill Me*는 이른바 성소수자인 퀴어 문화 및 AIDS 관련 활동, 혹은 성소수자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2019년 선정 책에는 한국계 이민진 작가의 *Pachinko*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책은 2019년 SFPL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인소설 5권 가운데 3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SFPL, 2019, 5). 샌프란시스코가 지향하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는 ‘On the Same Page’ 선정 책들이 어찌하면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OCOB와 더불어 시민들의 독서 관심을 계속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3.2.2 역대 선정 책

OCOB에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역대 선정된 책은 모두 18권으로, 소설 8권, 전기 5권, 그리고 역사 등 비소설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선정된 책들은 국내 독자들에게는 낯선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에 보는 선정 책 목록에는 SFPL이 제공한 간략한 설명(SFPL, 2024d)과 함께 미국의회도서관 온라인목록에서 각 책에 부여한 LC주제표목 및 해당 시 요

약정보를 추가하였다. 또한 참조한 LC 서지레코드의 LCCN Permalink를 병기하여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2005년: *China Boy* (Lee, Gus, 1991): 1950년대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에 끼인 소년의 강력하고도 신랄한 어린 시절 이야기임. (<https://lccn.loc.gov/90021687> LCSH: Chinese American families--Fiction, San Francisco (Calif.)--Fiction.)
- 2006년: *Hummingbird's Daughter: Tells the story of Teresita* (Urrea, Luis Alberto, 2006): 한 어린 소녀가 치유자로서의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혁명에 영감을 준 멕시코의 '잔다르크'로 성장해 감. (<https://lccn.loc.gov/2004027849> LCSH: Teenage girls--Fiction, Mexico--History--1867-1910--Fiction.)
- 2007년: *Cane River* (Tademy, Lalita, 2001): 망각할 수 없는 스토리텔링과 공들인 역사적 재구성을 결합함. (<https://lccn.loc.gov/2002284062> LCSH: African American families--Fiction, Cane River Region (La.)--Fiction.)
- 2008년: *West of Kabul, East of New York: An Afghan American Story* (Ansary, Mir Tamim, 2003): 작가는 '올드 아프가니스탄' 시대로부터 소비에트 지배를 거쳐 나중에 탈리반 시대까지, 아프간 역사에 대한 드문 접근을 제공함. (<https://lccn.loc.gov/2002045025> LCSH: Afghan Americans--Biography.)
- 2009년: *Alive in Necropolis* (Dorst, Doug, 2008): 콜마시를 배경으로, 생존자수를 훨씬 넘어서는 사망시민들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임. (<https://lccn.loc.gov/2008005817> LCSH: Police--California, Northern--Fiction, Ghost stories.)
- 2010년: *Zeitoun* (Eggers, Dave, 2010): 태풍 카트리나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한 소름 끼치면서도 흥미로운 스토리임. (<https://lccn.loc.gov/2010000757> LCSH: Zeitoun, Abdulrahman, 1957- Disaster victims--Louisiana--New Orleans--Biography.)
- 2011년: *Packing for Mars: The Curious Science of Life in the Void* (Roach, Mary, 2010): 우주왕복선 훈련부터 NASA의 신형 우주 캡슐 충돌 테스트까지, 우주 및 지구상 공간에서의 삶의 과학으로 초현실적으로 재미난 여행으로 데려감. (<https://lccn.loc.gov/2010017113> LCSH: Space biology--Popular works.)
- 2012년: *A Paradise Built in Hell: The Extraordinary Communities That Arise in Disasters* (Solnit, Rebecca, 2009): 현대 캘리포니아 작가의 내러티브 논픽션 걸작. 작가가 사회적 및 정치적 삶의 민주적 형태에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동체 및 공동 목표에 대한 우리 요구에 관하여 놀라운 결론에 도달함. (<https://lccn.loc.gov/2009004101> LCSH: Disasters--Social aspects.)
- 2013년: *Little Brother* (Doctorow, Cory, 2008):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대담하고,

- 자극적이며 과감한 책임. 도발적이며, 시의적절함. (<https://lccn.loc.gov/2008001827> LCSH: United States. Dept. of Homeland Security--Fiction, Terrorism--Fiction.)
- 2014년: *Tales of the City* (Maupin, Armistead, 2007): 샌프란시스코의 바바리 레인(Barbary Lane) 28의 신비한 아파트 주민들에 관한 스토리로, 생활방식에 대한 생기 있는 코미디이자 우리가 사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린 시대의 지울 수 없는 묘사이기도 함. (<https://lccn.loc.gov/96148851> LCSH: City and town life--Fiction. San Francisco (Calif.)--Fiction.)
- 2015년: *Season of the Witch: Enchantment, Terror, and Deliverance in the City of Love* (Talbot, David, 2012): 샌프란시스코 헤이트 구역의 ‘Summer of Love’ 시기 초기부터, 살인과 폭력의 시대를 거쳐, 도시가 발전해옴. 폭넓은 조사와 개인 인터뷰를 통해, 유례없이 상세하게 15년 역사를 기록함. (<https://lccn.loc.gov/2011032082> LCSH: City and town life--California--San Francisco--History--20th century.)
- 2016년: *Beautiful Chaos: A Life in the Theater* (Perloff, Carey, 2015): 저명한 배우, 감독 및 작가와의 밀접한 업무 경험을 포함한 뒷이야기임. (<https://lccn.loc.gov/2014037929> LCSH: Theatrical producers and directors--United states--Biography.)
- 2017년: *Black Against Empire: The History and Politics of the Black Panther Party* (Bloom, Joshua, 2016): 블랙 팬서당의 이데올로기적 기초의 전체 역사를 다룸: 무장 저항, 반제국주의, 젠더 역할, 베트남전과 징병,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 및 정부 억압 등. (<https://lccn.loc.gov/2020759217> LCSH: Black Panther Party--History. African Americans--Politics and government--20th century.)
- 2018년: *The Best We Could Do: An Illustrated Memoir* (Bui, Thi, 2017): 이민의 고난과 어린이에게 이주가 끼친 영구적 영향을 그림. 티 부이는 1970년대에 남베트남 함락 후에 가족의 탈출과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구축하면서 직면한 고난들을 기록함. (<https://lccn.loc.gov/2016940170> LCSH: Vietnamese Americans--Biography--Comic books, strips, etc.)
- 2019년: *There There* (Orange, Tommy, 2018): 이스트 베이에 살고 있는 미국 원주민의 스토리로서 아름답고, 재미있으며, 감동적이면서 참으로 현실적임. (<https://lccn.loc.gov/2017038125> LCSH: Indians of North America--Fiction, Interpersonal relations--Fiction.)
- 2020-21년: *Know My Name: A Memoir* (Miller, Chanel, 2019): 작가의 숨 막히는 회고록으로서 “독자들이 작가를 단순한 ‘에밀리 도’가 아니라, 작가, 예술가, 생존자, 투사인 샤넬 밀러로서 알게 되는 특권을 줌” (The Wrap). (<https://lccn.loc.gov/2019951348> LCSH: Rape victims--United States--Biography. Women--Crimes against--California--Stanford--

Case studies.)

○2023년: *This Is Ear Hustle: Unflinching Stories of Everyday Prison Life* (Poor, Nigel & Woods, Earlonne, 2021): 피바디 및 풀리치 지명 팟캐스트의 공동제작자 및 공동호스트가 현재 및 이전 재소자들의 감옥 생활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를 전함. (<https://lcn.loc.gov/2021304239> LCSH: California State Prison at San Quentin Prisons--United States.)

○2024년: *The Chinese Groove: A Novel* (Ma, Kathryn, 2023): 18세 셸리가 중국 원난성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가는 여정을 따라감. 그는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탐색하기 위하여 '중국풍(Chinese groove)'이란 관념에 의지하는 한편, 가족 간 갈등, 문화적 적응 및 개인적 포부에 직면하게 됨. (<https://lcn.loc.gov/2022023051>).

지금까지 OCOB에 선정된 책들에는 대체로 신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맨 처음 선정된 *China Boy*가 1991년, 2013년 *Little Brother*가 2008년, 2014년 *Tales of the City*가 2007년에 각각 발행된 것 외에는 대부분 발행 지 일어난 이내의 신간들이 선정되었다. 한편 2018년 선정된 *The Best We Could Do*는 'Seattle Reads'에서 2019년 선정되었고, 2019년 선정 책인 *There There*는 2020년 'Seattle Reads'와 2023년 'One Book One Chicago'에서 선정되었다. 이 책들은 여러 문학 관련 상을 받거나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주목받으면서 여러 지역사회에서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으로 인정받았고, OCOB에서

도 선정되었다.

선정 책들의 대부분은 앞서 선정기준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제로든, 배경으로든, 작가의 거주지나 출생지로든 샌프란시스코와 관련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스탠포드 등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역과 연관된 책들도 있다. LCSH를 참조하면 그러한 주제의 책들이 십여 권에 이른다. 예를 들어, 2013년의 *Little Brother*는 "샌프란시스코에 발생한 테러리스트 공격 여파로, 미국 국토부에 의하여 조사를 받은 후, 지금은 경찰국가가 되어버린 사회로 석방된, 열일곱 살 소년 마커스가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컴퓨터 해킹 전문성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스토리이다(LC, 2024a). 이 책은 테러리즘, 인권, 해커 등 현대사회의 여러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배경이 샌프란시스코라는 점은 시민들로 하여금 더 관심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의 *Seasons of Witch* 또한 "1967년부터 1982년까지 거친 시기에 샌프란시스코와 이 도시의 궁극적인 변화 및 재생과 승리를 이끌어낸 특별한 남자와 여자들의 눈을 끄는 스토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LC, 2024b). 2023년 선정된 *This Is Ear Hustle*은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 퀴엔틴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의 재소자 감방생활이 주제인 책이며, 2020-21년 16번째 책으로 선정된 *Know My Name*은 인근 스탠포드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피해자를 주제로 하며, 2024년 선정된 *The Chinese Groove* 역시 샌프란시스코가 주된 배경이다.

한편 2005년 최초 선정된 *The China Boy*의 작가인 Gus Lee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으며, 2016년 *Beautiful Chaos*의 저자인 Carey Perloff는 샌프란시스코의 American

Conservatory Theatre(ACT) 디렉터였던 공연예술 전문가이다. 또한, 2019년 *There There*의 작가 Tommy Orange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다. 이처럼 작가들의 지역적 연고 및 활동 범위가 샌프란시스코라는 점은 책 속에 그려지는 도시와 도시의 삶이 시민들에게 더욱 밀착된 것으로 실감될 수 있게 한다. OCOB에서 선정된 책들은 매우 분명하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성(locality)’을 반영한다.

OCOB 책의 선정기준에는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다양성이 언급되어 있다. ‘Seattle Reads’가 지난 25년 간 선정하는 책들의 거의 대부분은 작가들의 인종적, 민족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비하여(윤정옥, 2023), OCOB 선정 책들의 작가는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중국계, 미국 원주민계, 아프리카계, 라틴계, 베트남계 등 작가들의 민족적 다양성도 드러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라는 지리적 공간이 매우 중요하게 연계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3.3 독서토론 가이드북과 주요 행사

OCOB 독서토론 가이드북은 ‘Seattle Reads’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One Book’ 독서토론 안내서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2005년 최초의 OCOB 가이드북은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SFPL 관장의 축하인사와 더불어 작가 소개, 행사 안내, 독서토론을 위한 독서방법, 18개의 토론질문, ‘San Francisco Novels’로서 Amy Tan의 *The Joy Luck Club* 등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책 30권의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때

주요 행사는 2005년 9월부터 10월 사이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작가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SFPL 본관에서 작가와의 독서토론, 리셉션에서 Friends of the SFPL 회원들과의 만남, 작가와 점심 식사 및 대담, 런치타임 독서회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에 참여하였고, SFPL 본관, 분관 및 서점 등에서 모두 14차례의 독서토론이 진행되었다. 2005 OCOB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외에는 유일하게 ‘소셜 속 샌프란시스코 워킹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초기의 다른 ‘One Book’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매체와 행사들을 활용했던 것에 비하여, 2005 OCOB는 전적으로 책과 작가에 집중된 행사를 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OCOB 행사에는 점차 영화 상영, 전시회,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었다. 2017년에는 *Black Against Empire*를 읽으면서, 작가강연, 패널토론, 영화상영 등 행사를 진행했고(SFPL, 2018),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진행된 2020-21년에는 OCOB가 처음으로 도서관의 가상공간에서 커뮤니티를 함께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 것처럼 줌을 활용하여 여러 행사를 치렀다. 이때는 페미니즘과 성폭력 생존 등 주제를 다룬 저자 강연 및 패널토론 등 21개 프로그램에 4,187명이 참여하였고, 1,143명의 이용자가 인쇄본 책을 대출하였고, 4,385명 이상이 eBook 혹은 eAudiobook으로 책을 읽었다. 특히 저자 강연은 일본, 호주 등 다른 나라 참가자들을 포함하여 2,300여 명이 시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FPL, 2022, 8). 2022년 가을에는 선정 책 논픽션 *This Is Ear Hustle* 작가인 팟캐스트 방송인인 작가 Earlonne Woods와 Nigel Poor가 방문하여 모든 SFPL

분관에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고, 책의 주제인 인종주의 정책, 재소자 지지, 및 감옥에서의 예술과 교육 등 주제와 관련된 2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앙도서관에서 이전 재소자 화가가 그린 책 내 삽화 전시회,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전시 등도 진행하였다(SFPL, 2024b, 14).

2024년 OCOB 독서토론 가이드북에는 선정 책과 작가 소개, 행사 일정 안내, 15개의 독서토론 질문, 21권의 책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고, 거의 이십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독서토론 가이드북의 형식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가이드북에 소개된 주요 행사 일정에 따르면, 작가 Kathryn Ma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8차례 북클럽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중앙도서관에서 한 차례, 분관에서 두 차례 시민들과 대담 시간을 가졌다. 그밖에도 한국계 작가인 Nancy Jooyoun Kim 및 Parini Shroff와의 대담, 사진작가 Corky Lee의 'Asian America: Fifty Years of Photographic Justice' 소개, 중국계 작가 Curtis Chin 북 토크, 워크숍,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2024년 OCOB에도 여전히 책과 작가, 독서와 토론이 중심이지만, 책의 주제인 '아시아계 미국인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되었고, 다른 작가들과의 만남, 영화나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문화적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진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3.4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One Book' 독서운동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OCOB 또한 비영리단체인 Friends

of the San Francisco Public Library와 같이 도서관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들이 재정 지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riends of the San Francisco Library는 첫해인 2005년부터 OCOB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고, 매년 SFPL에 상당액을 기부하는데, 2022년에는 도서관 분관 2개관 개축에 3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 혁신', '평생학습', 및 '예술 & 문화' 부문에 모두 100만 달러 정도를 SFPL에 기탁하였다. 그 가운데 '예술 & 문화' 부문에는 "풍성하고 다양한 역사, 예술 및 문화를 기리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을 한데 모으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0만 달러를 기탁하였는데, OCOB에 대한 구체적 지원금액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OCOB를 그들이 지원하는 중요한 한 프로그램으로 언급하고 있다(FRIENDSSFPL, 2023, 2).

한편 2019년의 15번째 OCOB는 특별히 지역사회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는 특별하고 의미있는 행사로 치러졌다. 샌프란시스코 시민 Tommy Orange가 미국 원주민의 삶에 관하여 그린 데뷔 소설인 *There There*를 "시의적절하게" 선정한 OCOB는 샌프란시스코에 대단히 중요한 기념일과 행사들의 "유례없는 합류"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OCOB와 더불어 알카트라즈 점령 50주년, 샌프란시스코 시 최초의 '원주민의 날(Indigenous Peoples Day)' 기념, 시청사에서 인종차별적인 'Early Days' 조각상 철거 기념일 및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SFAC)가 주관하는 지역 원주민(First Person)의 공헌을 축하하는 최초의 시전역 'American Indian Initiative'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작

가는 2019년 10월 16일 시민들로 가득 찬 코렛 강연장에서 샌프란시스코 계관사인 Kim Shuck와 대담 및 지역고등학교에서 작가강연을 했고, SFPL은 13개의 북 그룹을 주관하고, 모든 연령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SFPL은 이후 석 달 동안 시 전역에서 지역의 원주민 단체 및 문화기관들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시민들은 ‘Landless in the Bay Area’라는 주제로 역사 및 여성에 관한 지역지도자들과의 대담, 국립공원서비스(National Park Service)와 협력하여 ‘Alcatraz Is Not an Island’라는 주제로 알카트라즈 점령의 역사 프리젠테이션, 파크 레인저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올론(Ohlone) 부족의 역사, 문화, 관습에 대한 소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SFPL은 또한 알카트라즈 및 지역 원주민 공예, 예술 및 역사 관련 전시회를 여섯 차례 열었고, 계관사인의 ‘First Person’ 예찬 강연 등을 진행했다(SFPL, 2020). 2020년 3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도서관 폐쇄 직전까지 SFPL은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과 매우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보여주었다.

3.5 OCOB의 영향과 효과

OCOB가 미치는 효과는 선정 책의 대출 증가에서 관찰할 수 있다. SFPL이 공개한 2016-17년, 2017-18년 연차보고서는 ‘성인 책(Adult Book)’ 부문으로만 최다 대출 책을 공개하여 OCOB 선정 책의 대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8-19년에는 선정 책 *The Best We Could Do*가 그해 가장 많이 대출된 성인비소설 부문 1위였다(SFPL, 2019, 5). 2020-21년

에는 선정 책 *Know My Name*은 성인비소설 부문 2위에 올랐는데, 그해 대출 1위는 미국 전 대통령 Barak Obama의 *A Promised Land*이고 3위는 전 영부인 Michelle Obama의 *Becoming*인 것(SFPL, 2022, 20)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의 삶과 교도소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삶이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2022-23년 *This Is Ear Hustle*도 가장 많이 대출된 성인비소설 1위에 올랐다(SFPL, 2024b, 18).

2018년부터 2023년까지 OCOB에서 선정된 책들 중에는 2019년 *There There*가 유일한 소설이다. SFPL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0년 3월 도서관을 닫았고, 신문형태로 발행한 2019-20년 연차보고서에는 ebook과 eAudioBook 대출 순위만 보여주었는데, *There There*는 ‘Top 10 Ebook’에서 5위에 올랐다(SFPL, 2020, B3). 2020-21년에는 성인소설 부문 최다 대출 3위에 올랐다(SFPL, 2022, 5). 이처럼 OCOB에서 선정된 책들이 대부분 그해 최다 대출 상위권에 드는 것은 OCOB가 시민들의 독서생활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4. 맺음말

‘한 권의 책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One Book, One Chicago가 선언했던 것처럼, 어떤 책을 선정하는가에 따라 ‘One Book’ 프로그램의 방향이 결정된다. 역으로 ‘One Book’ 프로그램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가에 따라 선정되는 책들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One Book’ 프로그

램의 목표와 책은 뗄 수 없는 순환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OCOB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005년 출범하여 2024년까지 매년 모두 18차례 진행된 'One Book' 프로그램이다. OCOB는 도시를 하나의 북클럽으로 만들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자는 전형적인 'One Book' 독서운동의 목표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 OCOB는 특별히 인종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연관된 책들을 선정해왔으며, 시민들의 관심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및 선정 책 대출의 증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OCOB는 'San Francisco Reads'의 일환으로 두 달 간격으로 책을 선정하여 읽는 'On the Same Page'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한다.

OCOB가 책의 선정 및 그에 기반한 행사의 진행 면에서 꾸준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은 지난 2003년부터 'One Book' 독서운동을 도입하여 진행해온 국내 도서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 기준 크고 작은 60

여 개 지역사회에서 'One Book'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윤정옥, 2022).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국내 'One Book' 프로그램들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연령대별 한 권을 선정하며, 신간 베스트셀러를 선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은 달라도 'One Book' 프로그램들이 읽는 책은 매년 거의 같고, 행사의 진행 또한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한 집중이 아닌 분산의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국내에서는 'One Book'의 이름은 그대로이지만 어쩌면 청소년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독서운동이라는 'One Book'의 원래 지향점이 달라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변화가 옳다 그르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OCOB와 같이 오랜 기간 'One Book' 독서운동의 전형성을 유지하는 사례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OCOB는 SFPL의 '비전 2030'을 위한 '문화적 확장자' 및 '커뮤니티 촉매자' 전략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로서 향후에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OCOB의 미래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오세란 (2019).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현황 및 분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4, 103-140. <http://doi.org/10.24993/JKLCY.2019.06.30.103>
- 윤정옥 (2021). '책 읽는 청주'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9-84.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59>
- 윤정옥 (2022). 국내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선정 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165-188. <https://doi.org/10.16981/kliss.53.2.202206.165>

- 윤정옥 (2023).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사례연구: Seattle Read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4), 161-184. <http://doi.org/10.4275/KSLIS.2023.57.4.161>
- 이국환 (2018). 독서운동으로서 ‘한 책, 한 도시’ 연구: ‘원북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72, 81-110. <https://doi.org/10.17842/jsa.2018..72.81>
- 이국환 (2023). 부산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동남어문논집, 56, 179-193.
- 장덕현 (2022). ‘원북 원부산’을 통해 본 한책 한도시 캠페인의 성과와 반성. 인문사회 21, 13(1), 1589-1598.
- Friends of the San Francisco Public Library(FRIENDSSFPL) (2023). Arts and culture fund. Available:
https://www.friendssfpl.org/uploads/1/1/6/1/116143211/05_arts_and_culture_pdf.pdf
- Friends of the San Francisco Public Library(FRIENDSSFPL) (2024). Annual report: June 2022-June 2023. Available:
https://www.friendssfpl.org/uploads/1/1/6/1/116143211/friends_of_the_library_2022_-_2023_annual_report.pdf
- Library of Congress(LC) (2024a). Catalog. Little Brother. Available:
<https://lccn.loc.gov/2008001827>
- Library of Congress(LC) (2024b). Catalog. Beautiful Chaos. Available:
<https://lccn.loc.gov/2014037929>
-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05).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 Fall 2005. Available:
<https://sfpl.org/pdf/book-and-materials/readers-corner/one-city-one-book/2005-program-guide.pdf>
-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18). Annual report 2017/2018.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pdf/about/administration/statistics-reports/Annual-Report2017-18.pdf> [cited 2024.07.27]
-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19). Annual report 2017/2018.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pdf/about/administration/statistics-reports/Annual-Report2019.pdf>
-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0).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9-2020.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2020-12/sfpl-annual-report12172020.pdf>
-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2).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Annual Report FY 2020-2021.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2021-22/sfpl-annual-report-2020-21.pdf>
-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3).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Annual Report FY

2021-22 Annual.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2023-01/SFPL-Stats_Systemwide_FY2022.pdf [cited 2024.07.23]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3a).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Annual Report FY 2021-2022.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2023-04/%21AnnualReport_2022_FNL3lowres%201.pdf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4). Vision 2030: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strategic plan: 2024-203.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2024-03/ITEM-3.3-Strategic-Plan-FINAL.pdf>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4a). History of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Available:

<https://sfpl.org/about-us/history-san-francisco-public-library>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4b).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Annual Report FY 2022-2023.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2023-12/2023_SFPLAnnualReport_FNL_digital.pdf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4c). One City One Book: San Francisco Reads: the Chinese Groove. Available:

https://sfpl.org/sites/default/files/2024-04/OCOB__programGuide__online.pdf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4d). General recommendations: SFPL One City One Book Selections. Available: <https://sfpl.bibliocommons.com/list/share/user/651175928>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4e). One City One Book: selection criteria. Available:

<https://sfpl.org/one-city-one-book-selection-criteria>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4f). About One City One Book. Available:

<https://sfpl.org/books-and-media/read/about-one-city-one-book>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4g). On the Same Page: previous selections. Available:

<https://sfpl.org/books-and-media/read/same-page-previous-selections>

San Francisco Public Library(SFPL) (2024h). On the Same Page: selection criteria. Available:

<https://sfpl.org/books-and-media/read/same-page-bannerless/same-page-how-write-autobiographical-novel/same-pag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24a). QuickFacts: San Francisco city, California: San Francisco County, California. Available: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table/sanfranciscocitycalifornia,sanfranciscocountycalifornia>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24b). QuickFacts: United States. Available: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table/U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2022).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One Book One City Campaign as viewed through ‘One Book One Bus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1), 1589-1598.
- Lee, Kook-hwan (2018). A study on ‘One Book, One City’ as a reading movement. *Seokdang Nonchong*, 72, 81-110. <http://doi.org/10.17842/jsa.2018..72.81>
- Lee, Kookwhan (2023).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Busan’s ‘One Book, One City’ reading movement. *Dongna Omun Nonjip*, 56, 179-193.
- Oh, Seran (2019). An analysis of children’s books and youth books selected for ‘One Book, One City’ in Korea. *The Korea Association of Researc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4, 103-140. <http://doi.org/10.24993/JKLCY.2019.06.30.103>
- Yoon, Cheong-Ok (2021). A research on the present state of ‘Reading Cheongju’ reading promotion campaig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9-84.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059>
- Yoon, Cheong-Ok (2022). A research on the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165-188. <https://doi.org/10.16981/kliss.53.2.202206.165>
- Yoon, Cheong-Ok (2023).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City’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s: Seattle Rea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4), 161-184. <http://doi.org/10.4275/KSLIS.2023.57.4.161>